‘이중 가난’의 대물림 끊어내기

(시편 86:1~17)

1.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2.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3.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4.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5.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이중 가난’의 대물림 끊어내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이중 가난’의 대물림 끊어내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1,300조를 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부의 양극화와 함께 나라 경제의 시한폭탄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경제적 위기상황 속에서 지난 10월에 시사Week지에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세계의 컨설팅 업체인 캡제미니(Capgemini)에서 2017년 세계 부 보고서(Global Wealth Report 2017)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에 한국에서는 투자자산을 100만 달러 이상 보유한 백만장자가 208,000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2015년 대비해서 15,000명이 늘어남으로서 백만장자의 수가 219,000명인 인도에 이어서 세계 13위를 기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윤성주 연구위원이 2007~2015년까지 소득계층별 가구의 계층이동률을 분석했습니다. 쉽게 말해 가난한 사람이 중산층이 되고, 중산층은 부유층으로 이동한 사례를 조사해서 백분율로 분석한 것입니다. 매년 소득계층의 이동이 없을 확률은 40.4%였다고 하고, 올라갈 확률은 30%였고 내려갈 확률도 마찬가지로 30%정도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70%의 가구가 소득이 제자리거나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우리 사회에서 가난을 대물림하는 가능성이 고착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중요하게 작용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장관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 이 난국을 잘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미국에서 모기지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또한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바라는 바는 모든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이 십자가 생활화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

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전하고 기다릴 뿐이지만 국가적 사회제도나 구조적인 문제를 마냥 정치인들에게 기대하고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가난의 문제가 있고 재정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가난을 언급하면서 이중 가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의 문제나 재정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최선의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본문은 우리 자신의 재정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를 신앙과 연관 지어 이중 가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 곧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느냐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실제 라오디게아 지역은 교통과 상업의 요지였으며 은행업이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염색업이 발달해서 세계 최초로 자색 옷을 생산한 곳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금의 병원인 치유의 신전이 있었고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만드는 프리기안 안약이 유명해서 그로 인한 수입이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계시록의 말씀대로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8절을 보면 주님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하시며 그들을 가난하다고 나무라십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 먼저 성경이 말씀하는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물질적 가난의 실마리도 풀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수립하느냐의 문제는 우리의 기다림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당장 닥쳐오는 경제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성경은 이중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를 통해서 물질적 가난의 해결을 위한 실마리도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시는 다윗의 시로서 저작 시기나 배경에 대해서는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대적들에 의해서 상당한 곤경에 처한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14절에서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학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았사오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교만하고 포악한 자들로 인해 일어난 곤경을 가난함과 궁핍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난과 궁핍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것 같은 물이나 음식에 대한 욕구 혹은 입을 옷에 대한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들 원수로 인해 주어진 가난과 궁

핍이 무엇이며, 이 가난과 궁핍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중 가난은 마음의 방향이 위를 향해 가난하고 옆을 향해서도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하다'라는 말은 똑같은 말인데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뜻하는 히브리어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앞서 나온 가난은 히브리어 '아니'라는 단어입니다. 아니는 '아나'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로 '낮추다, 억압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리눌림으로 고통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온 '궁핍하다'라는 말은 '에브욘'이라는 히브리어로 일반적인 물질적 가난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통해 1절 말씀을 직역해보면 '나는 원수들로 말미암아 억압되어 내리눌리고 있으며 궁핍하오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을 보면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 '경건하오니'라는 말이 이중 가난을 해석하는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경건'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하시드'입니다. 하시드는 '헤세드'라는 어원을 가진 동사로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친절과 사랑과 자비를 베푸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어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 가지시는 사랑과 인간 사이에서 가지는 사랑은 같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즉 인간 사이에서 사용되는 하시드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넘쳐흘러서 이웃에게까지 미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주셨고 그 사랑이 충만하게 넘쳐서 이웃에게까지 흐름을 '하시드'라는 말로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라는 말을 직역하면 '나는 이웃을 향해 열려있사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라는 말이 됩니다. 이 경건을 보다 자세하게 풀이하자면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받아서 충만해진 가운데 그 넘쳐흐르는 것들로 이웃을 사랑했습니다.'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라는 말은 '내 영혼이 댐과 저수지처럼 차고 넘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5절에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라고 하는 말은 죄가 있으면 내 영혼이 채워질 수 없고 하나님께 받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로부터 받음의 전제조건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인자함이 앞서 경건으로 해석되었던 하시드입니다. 이웃에게 줄 수 있는 하시드의 사랑은 하나님께 하시드를 받는 것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중 가난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에 의한 가난을 호소합니다. 앞선 시들을 통해서도 원수들로 인해 생긴 많은 괴로움을 호소하였는데 오늘은 그것을 구태여 가난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은 내리눌림입니다. 삶의 문제들에 마음이 파묻히고 깔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마음은 하늘로 채워질 수 있는 통로가 막혀버렸습니다. 삶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눌려 하늘로 이어진 통로가 막히자 마음은 채워지지 않아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옆으로 흘러갈 것도 없어진 궁핍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중의 가난입니다.
하늘로부터 받아서 마음이 풍족해져야 옆으로 흘려보낼 것도 생기는데, 하늘에 대해서 가난해지자 옆으로 흘려보낼 것이 없는 이중의 가난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마음이 원수라는 삶의 문제에 깔려버린 결과입니다. 억눌리고 끌어내려졌습니다.
3~4절을 보면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하루 종일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은 원수를 무찔러달라는 간구가 아니었습니다. 원수가 나를 내리누른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러러보오니'라는 말이 1절에 나왔던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우러러본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들어 올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마음을 들어 올리오니 주여 내 마음을 기쁘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중 가난 중에 첫 번째 가난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저런 삶의 문제에 짓눌려 있을 수 있습니다. 돈 건강 자녀 직장 등의 문제가 짓누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은 가난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체감하지 못한 채 드러난 현상만을 문제 삼습니다. 돈 문제로 인해 가난해 질 것만을 걱정할 뿐 돈 문제로 인해 내 마음이 가라앉고 억눌림으로 인해서 하늘로 부유하게 될 가능성이 막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정확히 파악하였기에 오늘 본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의 잔해에 깔렸다면 그것을 다 들어 올려야만 사람을 구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원수들이라는 삶의 문제의 잔해에 깔려버린 마음을 끌어 올려야만 합니다. 그것을 바로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라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들어 올리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은 '삶의 문제에 짓눌린 상태에서 마음을 들어 올리니,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워서 기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기가 막히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에 깔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자신의 마음이 가난해짐을 문제 삼았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마음은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원수라는 삶의 문제로 인해 마음이 가난해져버렸습니다. 이럴 때에 또 하나의 궁핍이 결과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내

마음이 가난하니 이웃에게 흘려보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즉 하시드가 없습니다. 하나도 흘려보낼 수가 없어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한 궁핍해집니다. 다윗은 이러한 이중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구한 것입니다.

마음이 삶의 문제에 깔리는 것의 본질은 가난입니다.
하늘을 향해 가난해지면 옆을 향한 가난이 뒤따라옵니다. 이중으로 가난해 집니다. 이를 통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인간관계 직장문제 돈 문제 등의 어떤 문제가 주어지더라도 그 핵심은 가난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들의 잔해더미가 내리눌러 마음이 묻혀버리면 하나님에게 가난해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로 채워짐이 없으면 옆으로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로 채워지지 않으면 나눠주기는커녕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빨대를 꽂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마음 채움 거리를 얻기를 바랍니다. 어떤 관계에서나 지극히 적은 분량이라도 빨아먹기 위해서 빨대를 꽂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부자 되지 않는 한 마음의 만족을 위해 서로에게 빨대를 꽂습니다. 대리는 사장에게 빨대를 꽂고 사장은 대리에게 빨대를 꽂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빨대를 꽂고 부모는 자녀에게 빨대를 꽂아 만족하기를 바랍니다. 흘러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빨아들이려고만 합니다. 흘려보내는 것도 거래에 불과하게 됩니다. 더 큰 것을 받기 위해 조금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늘로 부자 되지 못한 가난한 자들의 몸부림입니다.
4절에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삶의 문제에 파묻혔던 마음을 들어 올려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워서 기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로 보내면 마음이 기뻐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부자가 되고 나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빨대를 꽂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나로부터 그들에게로 흘려보낼 것들만 남게 됩니다. 이미 나는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이웃과의 관계는 줄 것이 많은 부유한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돈을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을 들어 올려 아버지께로 드린 결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셨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돈은 없으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돈 한 푼 없이도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돈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부자 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의해 결정될 문제입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이 주어질 것입니다. 돈이 아닌 방법으로 이웃을 사랑할 사명이라면 돈 없이도 만족할 것입니다. 돈은 관심의 대상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주님은 돈 한 푼 없이도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었고, 부유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채워진다면 그 재산을 다 써서 구제를 행할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왔을 때에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도 이와 같습니다. 돈을 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으로 마음이 채워지면 노숙자라도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중의 가난을 극복함으로 이중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부자가 되고 이웃을 향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노숙자의 신세일지라도 이웃에게 줄지언정 받지 않습니다. 마음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 가난해지면 이웃에 대해서도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궁핍함이 찾아왔음을 노래한 것이고 이중의 가난을 극복하고 이중의 부자 됨을 향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 생활화가 바로 이중의 가난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삶의 문제라는 잔해에 억눌려서 깔려버리지만 십자가는 우리 마음을 일으키는 기중기입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나를 덮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죽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면 우리의 마음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주님과 하나님이 가지시는 교제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님이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마음이 부자가 되면 원수든 돈이든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내 마음에 부족함이 없으면 돈 문제로 여겼던 상황도 여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재벌일지라도 마음의 만족이 없다면 돈에 대해 가난합니다. 항상 돈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은행에 몇 조씩 되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돈은 더 벌어야 되는 대상으로만 여깁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한 그 마음의 가난함은 재벌이 되어도 해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머니에 3,000원밖에 없을지라도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3,000원은 남아도는 돈이 됩니다. 나를 위해 쓸 필요가 없는 돈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이중의 가난을 극복하고 이중의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정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풍족할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을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관심거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가 경제위기에 대해 어떤 정책을 내놓고 국회에서 어떤 법을 만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잘 되기만을 바라지만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이중의 가난을 극복한 이중의 부자들이 되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대물림 되는 이중 가난을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극복하여 이중 부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